

'11차 지망' 꼼수... 광주, 로또같은 고교배정

시교육청, 선택학교 수 최대 11개로 늘려 강제배정 책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기

■ 2014학년도 광주 일반계고 신입생 전형 일정 및 배정 방법

원서교부 및 접수	12월 20일(금)~24일(화)	학교 배정 발표	2014년 1월 29일(수)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12월 30일(월) 오전 10시	합격자 등록	2014년 1월 29(수)~2월 6일(목)
배정방식	모집비율	방법	
선지원추첨	40%	일반고 중 2개교 지원, 성적등급 고려 추첨	
	자율형공립고(과학중점학교) 100%		
후지원추첨	60%	배정가능고교 중 5~9개교 지원, 성적등급 고려 추첨 (1등급 8% 이하, 2등급 9%~80%, 3등급 81%~100%)	

올해 초 광주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무더기 강제배정 사태를 불렀던 광주 시교육청의 성적을 고려한 고교배정 방식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성적 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선택 학교 수는 7개에서 최대 11개로 늘렸다. 강제배정이라는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혼란을 초래했던 성적 고려 방식이 그대로 고수된다. 선택학교 수 확대도 학부모에게 책임 전가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교배정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이 내년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14일 확정, 공고했다.

올해 무더기 강제배정 사태를 불렀던 일반계 고교 배정방식은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다.

거리와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추첨배정(선지원)은 정원의 40%를 선발하고,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가능고교를 선택하는 후지원추첨배정(후지원)에서 60%를 배정한다.

선지원에서 2개교를 선택하는 것도 바뀌지 않았다. 후지원에서는 선택학교 수가 올해 5개교에서 내년엔 최대 9개교로 늘렸다. 선택학교 수는 배정가능고교의 60% 범위였다. 예를 들어 A중학교의 배정가능고교가 10곳이라면 이 중 60%인 6개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택학교 수를 늘린 대신 우선순위를 없앴으며,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후지원 선택학교 숫자만 늘린다고 선택권을 넓혔다고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 대부분의 고교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학교인 탓이다. 이 때문에 강제배정이라는 명을 벗고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제 학교를 선택하게 해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배정가능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자칫 중학교 때부터 학군에 따른 대이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제배정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성적등급은 선지원·후지원 모두 반영한다. 다만, 올해 5등급에서 내년엔 3등급으로 완화했다. 2등급 범위를 전체의 72%로 두텁게 했다. 강제배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3개 등급으로는 성적 편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계고 전형 일정은 오는 12월20일부터 원서를 받아 12월30일 합격자를 확정하는 뒤, 내년 1월29일 배정고교를 발표한다. 특성화고 등 전기고는 이보다 앞서 11월18일부터 원서를 받아 학교별 전형일정을 거쳐 12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포라인 원전 브로커 '최종경 전 장관에 금품로비'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 오희택(55·구축)이 국가정보원 출신인 한국정수공업 윤모(57) 고문을 통해 최종경(57)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 원전비리 수사가 정계에 이어 판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씨는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에 "한수원 전무를(회사에 유리한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최종경 장관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5000만 원을 받아 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내 학생에 맞는 대학은? 14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2014 대학 입학 설명회'에서 광주, 전남·북지역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이 대학 수시모집 지원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여인에 돌을 던져야하나...”

성폭행 피해로 낳은 아이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여·23)씨를 구속했다.

성폭행 피해로 낳은 아이 코와 입 막아 숨지게 서부경찰에 잡힌 20대 女 “범인 얼굴 떠올라 그만...”

월16일 경기도 수원에서 성폭행 피해로 뒤늦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낙태 수술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미혼모시설에 입소, 아이를 출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주택에서 영아의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질식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그러나 부검 결과, A씨 진술과 달리 영아의 위에서 분유 성분이 나오지 않은데다, 질식이 직접적 사인인 것으로 드러나자 A씨의 행방을 추적, 지난 13일 출산 전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의 얼굴에서 성폭행범의 얼굴이 떠올라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임신 중절(낙태)을 허용하고 있으며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남뉴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김윤석 '피의자' 조사 위조 개입 입증 주력

광주지검, 수형선수권 수사

2019 세계수형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의 개입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3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귀가한 김 총장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일단 피의자는 위조 당사자인 유치위 6급 직원 한모(여·44)씨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14일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김 총장을 불러 밤 11시43분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한씨가 자발적으로 정부보증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총장을 상대로 사전 또는 사후 보고 또는 묵인 등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에 대한 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핵심을 '진상규

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보증서 위조된 과정과 관련자들의 행위가 입증됐다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긋날 경우 대질신문이나 추가 조사도 불가피하게 된다.

강원태 광주시장과 관련 검찰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치위원장의 위치에서 관련 서류 중 일부인 정부보증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보증서라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최종 제출서류에는 위조된 정부보증서가 제외됐다는 점 ▲위조 행위가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국제대회 유치과정에서 일부 관례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점 등이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이 대해서도 일반적인 ‘공문서 위조’와는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여아 성폭행범 법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

대법, 형량 줄지는 않을 듯

집에서 잠자던 7세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종석(24)이 재판부의 법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행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합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1·2심에서 고씨에게 적용한 법령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이다. 1990년 신설된 해당 조항은 형법 제288조 1항(영리약취·유인죄)을 위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4월5일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형법만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영리약취·유인 외에 성폭행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혐의도 받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상사를 때려? 부하직원 경찰에 고소

○...광주 구청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

○...1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56)씨는 지난 달 30일 오전 11시30분께 구청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B(52)씨와 사전 보고 없는 출장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북구 관계자는 부하 직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지만 두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감사를 진행 중.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천경매 투자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 ④ 등록 기 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 과	모집정원	전 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 학 과(Th.M.)	○	구역,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석사	신 학 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